



성행위 중 남편 사망... 죽었나, 죽었나

재판부 "알코올치로 입원 앞두고 살인의도 없어" 무죄 목 졸랐지만 반항 흔적 없어... 검찰 당혹 속 항소 고민

지난 6월 7일 오후 4시45분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 한 가구의 화장실 안. 알코올중독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 남편과 부인은 네타이로 목을 조르는 '변태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매일 같이 술을 마시는 남편은 폭행을 일삼았고 심지어 어린 딸을 성추행하기도 했으나 입원을 앞두고 남편이 회사에서 조퇴한 이날만큼은 뜻에 따라주고 싶었다는 게 부인 주장이다.

네타이로 목을 서서히 조르자 남편은 흥분하기 시작했고, 이 같은 행위가 처음(부인 주장)이었던 부인은 10분간 계속 네타이로 목을 졸랐다. 한 순간 남편이 조용해지자 살펴봤지만 이미 숨져 있었다.

검찰은 부인을 살인 혐의에 구속하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7번의 공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을 지켜본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문유석)는 21일 변태 성행위를 하다가 남편 A(44)씨를 사망케 한 부인 B(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은 부인이 남편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남편이 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였다.

B씨의 변호를 입증하기 위해 초동 수사를 맡아 "남편을 살해했다"는 진술을 받은 경찰관까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재판부는 이 진술에 대해 "B씨의 경찰 진술은 죄책감과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말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장폭력에 어린 딸 성추행 등 10여년 동안의 A씨 행위는 B씨에게 그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계기가 된다고 의심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사건 당일에는 장기입

원을 앞둔 남편의 기분을 맞춰주고 싶었고, 관계도 회복돼 살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건 발생 7일전 남편의 폭력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입원 결정 후 부인이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를 취하한 것도 재판부 판단의 배경이 됐다.

결정적인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였다. A씨의 사체에 압박에 따른 질식사 과정에서 생기는 반항 흔적이 없고 목 부위가 서서히 조여졌다는 것이다.

법원 판결에 검찰과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경찰은 "B씨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고, 이날 남편과 다투어 술을 마신 뒤 변태 성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당일 화장실 안에서 부부 간 성행위 도중 벌어진 남편 사망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물론 재판부 역시 부인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살인의 고의성 여부는 항소심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굽디 고운 '성년례'

21일 광주시 북구 문정여고(교장·김영자) 대강당에서 열린 '성년례'(成年禮)에 참가한 2학년 학생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절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합격자 바뀌지기' 징계확정 정직 2개월 감봉 1개월

광주교총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의 '합격자 바뀌지기' 교사 채용비리 관련자들에게 징계가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총괄담당관실은 21일 "광주시교육감이 해당자들에 대해 교과부의 징계처분 요구대로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같은 사안에 대해 거듭 징계할 수 없어 시교육청의 의결대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이 최근 성적조작 채용비리 관련자 징계와 관련한 시교육청의 책임을 물어달라는 진정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시교육청은 교과부 감사결과 채용비리가 드러나자, 최근 해당 관련자 2명에 대해 정직 2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영기기자 penfoot@

2014년 '생활권역 중심 인사'

전남도교육청이 전남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교원들을 인사에서 우대하는 내용의 '생활권역 중심 인사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전남지역에 살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전남토록 하자는 방안이다.

전남도교육청은 21일 전남도교육연수원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권역 중심 인사관리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방안의 골지는 전남지역을 ▲동부권(순천·여수·광양·고흥·구례) ▲중부권(나주·담양·장성·화순·곡성·영광·함평) ▲서부권(목포·영암·무안)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권역에서 일정기간 교사들을 순환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해당권역에 거주하는 교원들을 인사에서 우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광주 등 타지역에 거주하는 교원들의 전남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강진·해남·장흥·보성·진도·신안·완도는 '공동구역'으로 설정돼 동부

권 등 3개 권역에서 장기근무한 교원들이 순환배치된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는 인사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최종 인사안을 확정, 오는 2014년 3월1일자 인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의 교육력을 끌어올리려면 기본적으로 교원들의 거주생활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두고 인사안을 마련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도교육청, 전남 거주 교원 인사 우대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14분
해질 17시 23분
달돋이 13시 39분
달질 01시 10분

소설,눈 대신 비...

흐리다 밤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다.

광주	구름많음	4/13°C
목포	흐림	5/12°C
여수	흐림	7/12°C
나주	흐림	3/13°C
완도	흐림	6/14°C
구례	흐림	2/14°C
강진	흐림	4/13°C
해남	흐림	4/14°C
장흥	흐림	4/14°C
순천	흐림	4/13°C
영광	구름많음	2/12°C
진도	흐림	6/14°C
전주	흐림	1/13°C
군산	흐림	1/12°C
남원	구름많음	-2/13°C
옥산도	흐림	8/12°C

〈오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풍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풍 0.5~1.0m

〈오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풍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풍 0.5~1.5m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날씨						
최저/최고	5/9	1/9	0/11	6/10	2/19	2/11

첨단지구 보훈병원 앞 4거리 직진 후 좌회전서 동시신호로

광주지방경찰청이 21일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 보훈병원 앞 4거리의 신호운영체계를 직진 후 좌회전 부여 방식에서 직진 좌회전 동시 신호운영체제로 바꿨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빙고율로의 전 구간이 개통되면서 북광주 및 시내 방면 이용 차량의 증가하고 특히 첨단지구 시민들의 출퇴

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호 운영체계를 변경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신호운영체계 변경으로 첨단 롯데마트 방면에서 빙고율로 방면 통행차량의 교차로 통과속도가 빨라져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JNJ TOUR 정남진투어 문의전화 1577-7616

여행을 통한 아름다운 만남..

정남진 투어에서는 제주도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Event 정남진 투어 공짜 이벤트!!! 선착순 1일 5명 공짜!

오렌지호 장흥↔제주

2012년 11월 19일 ~ 12월 20일까지 주중항차 • 금토정흥 / 일 성산출항 항차는 제외

선착순 3,00명 (사전예약자에 한함) 하루에 5명씩 적용!! 일반실 편도 ₩9,000 적용 (항만세 별도)

정남진투어 이용시 20% 항시 할인~!! 선박최고 40%/노력항까지 버스 임대 50% 할인~!!!

차량무료 선적 3명 예약시 1600cc 미만 차량 무료 이벤트 중복은 불가

제주 한라산 산행 99,000
제주 1박 2일투어 119,000
제주 2박3일투어 139,000